



‘광주 여행 토퍼 자판기’

양림동 등 4곳 설치 10월까지 운영

광주관광재단(대표 남성숙·이하 재단)은 2021년 비엔날레 여행의 해를 맞아 광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한 섹터별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다.

‘광주 여행 토퍼 자판기’를 마련한 것. ‘여행 토퍼’는 최근 젊은 관광객들 사이에 자리매김한 필수 아이템으로 사진 촬영시 손에 간단히 들어 사진에 멋을 더해주는 장식품이다.

자판기는 비엔날레 광장, 광주역, 남도관광센터, 양림마을이야기관 등 4곳에 설치됐으며 오는 10월31일까지 운영된다.

자판기는 각 관광명소(비엔날레 광장 외 3곳) 시설 개방시간에만 이용 가능하며, QR코드를 인식하고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재단은 이와 함께 디자인비엔날레 인지도 확산을 위해 비엔날레 광장에서 ‘예술여행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이며 인센네틱, 광주형 티켓 스탬프 체험, 내가 붙이는 광주관광지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서사무엘, UNITY’

14일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포커스(Focus) 9월 무대에는 가수 겸 작곡가 서사무엘이 오른다.

‘서사무엘, UNITY’가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주제 ‘UNITY’는 2018년 9월에 발매한 세 번째 앨범의 이름으로 광주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뮤지션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앨범 수록곡 중 ‘SHUT UP & DRIVE’, ‘그릴 수 있어’, ‘SANDWICH’, ‘고요’ 등을 들려준다. 또, ‘Antonio’s Song’, ‘Keep it simple’, ‘Dawn Things’, ‘Ordinary Kids’, ‘이음’, ‘침’, ‘창문’ 등도 선보이며 풍성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한편 2015년 앨범 ‘Frameworks’로 데뷔한 서사무엘은 이 앨범으로 제 13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앨범비디오 음반상’을 수상했으며, 이후에도 소설 ‘변신’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 ‘Kafka’, 두 번째 정규 앨범 ‘EGO EXPAND(100%)’ 등을 통해 자신만의 색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10월5일 열리는 포커스 다음 공연에서는 가수 하림이 출연해 ‘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를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13-823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무등산자락의재미미술관이 1년 8개월간의리모델링을거쳐 재개관했다. 미술관 전경과 1층 로비, 의재 선생의 삶을 재현한 공간.

의재미술관 재개관

미술관 안으로 무등산이 가득 들어왔다.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미술관 로비에서 바라보는 무등산은 가장 아름다운 한 폭의 가을 풍경을 연출할 터다.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 의재미술관(관장 이선욱)이 1년 8개월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조성룡 건축가와 김종규 교수가 공동 설계한 미술관은 자연과 어우러진 건물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개관 20년이 넘어가면서 시설이 노후화돼 전시 등에 애를 먹었고 국비와 시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 최근 새롭게 관람객을 맞이 시작했다. 올해는 미술관 개관 20주년, 의재 허백련 탄생 130주년을 맞는 해여서 새롭게 단장한 미술관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미술관으로 들어서면 탁 트인 공간이 한 눈에 들어온다. 대표소와 다양한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지나면 넓은 유리창 너머로 푸른 나무와 파란 하늘이 한 눈에 보이는 로비가 나타난다. 다양한 색감의 옷칠로 제작한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비어 있던 지하를 전시장으로 활용,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했다. 또 의재 관련 영상과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상영하는 영상전시실도 마련했다. 2전시실에서 3전시실로 이어지는 곳은 디자인하우스가 참여해 의재 선생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선생이 생전에 쓰던 화구와 다기, 가구 등을 배치해 생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는 3전시실로 이어지는 공간에는 자택에서 환한 웃음을 터트리는 선생의 대형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상설 전시실로 꾸며진 3전시실은 현대적 느낌이 나는 전문 조명을 설치해 의재 선생의 병풍과 산수화 등의 작품을 색다른 분위기로 만날 수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재개관 기념전은 ‘문향(聞香) 인연의 향기를 듣다’ 전(11월29일까지)이다. 산수화, 사군자, 화조화 등 34점의 전시는 의재가 인연을 맺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그려준 그림과 글씨다. 개인 소장작인 터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이며 전남대박물관, 일민미술관, 부산시립박물관에서도 의미있는 작품을 대여했다.

이번 전시는 사람의 향기가 그 어느 때보다 그립고, 안부를 묻게 되는 요즘에 맞춤형 기획이다. 의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은 채 그리고 쓴



작품들은 따뜻하다. 가족에게, 제자에게, 지인에게 정을 담아, 격려의 의미로, 장수와 편안을 기원하며 그려준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받은 작품처럼 위로가 된다.

의재는 80남어 첫 손자를 본 친구 최경석에게 축하의 마음을 담아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며 난과 목련을 소재로 한 ‘난정옥수’(蘭庭玉樹)를 그려 보내고, 함께 농업학교를 만든 오방 최홍중 목사의 회갑에는 그의 덕과 장수를 기원하는 ‘천보구여’(天保九如)를 선물했다.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뜻의 ‘화중유시’(畫中有詩)는 춘설현을 통해 인연을 맺어온 최원순의 손자 최영훈 화백에게 써준 글귀다. 최 화백은 1970년 첫 개인전을 열 무렵 춘설현으로 의재를 찾아갔고, 의재는 후배 작가를 격려하며 글씨를 써주었다. 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당 김은호 화백에게 그려준 작품 ‘산수’와 연진회 장림회원인 근원 구철우에게 그려준 ‘계산소수’는 청록산수화로 눈길을 끈다.

지하 전시실에서는 또 하나의 ‘인연’을 만나는 전시가 열린다.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주의운동가였던 지은(羅楨) 김철수 서예전이다. 그는 의재를 만나러 수시로 무등산을 찾았고 두 사람이 함께 심은 매화와 연산홍은 지금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전시작은 의재의 장손 직현 허달재 화백에게 써 준 글귀들이다. 1979년의

돌아온 인연의 ‘향기’



개관 20주년, 의재 탄생 130년 개인 소장작 재개관 기념전 매주 토요일, 호남서화 강좌도

재가 세상을 뜬 후에도 그는 직현을 친손자처럼 여기며 자주 만났고, 삶의 등불이 되는 글들을 써 줬다.

재개관을 맞아 호남한국화 열린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근대 호남 서화 폭넓고 깊게 알기’를 주제로 매주 토요일(오후 2시) 열리는 강좌(온라인·현장 강좌 병행)는 이태호 명지대 명예교수의 ‘호남서화의 전통’을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일에는 ‘호남 서화의 전통2’가 이어지며 ‘교육자이자 사회사상가 의재 허백련의 삶’(18일·정병준 한국 차산업중앙협회 회장) ‘새로운 남중문인화의 모색:남농 허건’(25일·최경현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 등의 강의를 오는 11월 6일까지 이어진다.

티켓 가격 2000원. 차와 먹을거리 추가하면 5000원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각 작가 정기호 소장작 의재 ‘위진사해’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